

주5일 근무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선재 · 최정원*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주5일 근무제는 높아지는 생산력과 원활한 재생산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가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숙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도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제도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관계를 밝혀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의 유형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본 연구를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마케팅의 기초분석자료로써 달라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의 변화를 인식하여 합리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의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실증적 설문을 위한 설문은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총 600부를 배포하여 49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21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고, 표본은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 Scheffe-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 실시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3년 이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경우에 가족지향 라이프스타일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업종에 따라서는 유통·무역업이 사교지향 라이프스타일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기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보면, 3년 이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경우에 점포의 상품과 제품, 점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제품의 만족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근무업종별로는 금융업과, 유통·무역업, 기타의 경우엔 제품의 만족·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아직까지 시작 단계인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기간이 오래된 직장인 일수록 가족지향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가족지향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수록 점포의 편의성과 점포의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하여 의류업계에서는 특히 가족과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 편의성과 점포 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전략에 힘써야 하겠다. 쇼핑기능만을 제공하는 단순한 쇼핑의 장소에서 쇼핑이외에 레저,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쇼핑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장보다는 캐주얼웨어의 선호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입장소 또한 패션지향, 유명상표지향 라이프스타일 일수록 백화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점포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주말 쇼핑객의 감소는 점차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할인점, 패션전문점, 쇼핑과 오락, 음식, 편의서비스가 포함된 복합쇼핑몰 등의 신업태의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백화점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고, 교외지역 유통업체들과 차별화를 위해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한다면 일시적인 구매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구매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